

문화/교육

강북구 '하우스어서 전문가 과정' 참여자 모집 운영

강북문화재단과 공연 문화 이끌어갈 공연장 안내원 교육 및 현장 경험 제공

🕒 25-01-24 👁 1,584 회 [제1508호]



▲ 하우스어서 전문가 과정 모집 포스터

지역별 정보

강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이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1월 31일까지 '2025년 하우스어서 전문가 과정' 참여자를 모집해 운영하기로 했다.

'하우스어서'란 공연장의 관객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서비스, 객석 안내, 입자권 스프, 아저과리 트이 어므르 다다하는 직원, 즉 공연장 안내 도우미를 말한다.

[×](#) [☞ 정치\(좌익\)](#)

‘하우스어서 전문가 과정’은 2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10주 과정으로, 공연장의 이해, 공연장 고객 응대 방법 및 현장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 수료 후에는 강북문화재단 기획공연의 하우스어서로 참여해 강북구의 공연 문화를 이끌어갈 지역활동가로 활동하게 된다.

강북문화재단은 지난해 강북문화대학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그림책 예술교육 전문가 심화 과정’과 ‘도슨트 전문가 과정’을 운영했으며, 교육 이수자들은 우이천 등축제, 강북Festa 등 강북문화재단 기획공연의 도슨트 및 지역활동가로서 역량을 발휘했다.

특히 ‘도슨트 전문가 과정’은 도슨트 전문가를 양성해 지역 내 학교 전시회에서 지역활동가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2024년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박람회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하우스어서 전문가 과정’은 공연 예술에 관심과 열정을 지닌 강북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강북구 소재 학교 재학생이나 사업장 종사자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접수 양식은 강북문화재단 홈페이지(www.gbcbf.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강북문화재단 예술교육팀(02-994-853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c)서울강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



▲ 도봉구 ‘초등학생 자기주도 학습 캠프’ 참여자 모집

▼ 강북구 외국인 주민 주거 보호 첫걸음...9개 언어 스탬프 도입

× 정치(좌익)